

정조국 “친정팀 골문 내가 뚫는다”



광주FC, 오늘 FC서울 홈경기 3경기 연속골 후 무소식 김민혁과 연패 탈출 특명

프로축구 광주 FC가 안방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광주가 13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과 2016 K리그 클래식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연패에 빠진 광주에게는 연패 탈출이라는 숙제가 주어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서울의 우세다. 수원FC의 클래식 첫 승의 제물이 됐던 광주는 앞선 울산 현대전에서는 득점포 가동에 실패하며 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승점 4점(1승 1무 2패)으로 9위다. 반면 서울은 승점 9점(3승 1패)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는 포항과 제주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스타트를 끊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 유니폼을 입은 베테랑 골잡이 정조국이 두 경기에서 3골을 터트리며 승점 사냥의 전면에 섰다. 그러나 수원 원정을 시작으로 광주의 기세가 꺾였다. 정조국이 3경기 연속골을 터트렸지만 후반 막판 연이어 실점을 허용하며 1-2 역전패로 돌아왔다. 이어진 울산과의 홈경기에서도 0-2로 완패를 당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광주다운 축구로 반전을 노려야 한다.

광주는 앞선 울산전에서 팀 전체적인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이에 광주의 남기일 감독은 울산전을 마친 후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 준비 과정은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경기를 하다 보니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 체력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분석을 통해 정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광주가 초반 분위기를 잊지 못한 사이 서울은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3경기에서 9골을 폭발시킨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무리다. 아드리아노-데안으로 이어지는 투톱은 K리그 최고의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광주는 90분 내내 집중력 있는 승부로 수비진을 구축하면서 기회를 노려야 한다. 연패 탈출을 목표로 한 이번 경기에서 정조국과 김민혁의 각오가 남다르다. 승리가 간절한 팀 상황, 여기에 이적 후 친정팀과의 첫 승부다. 서울의 얼굴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정조국은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이적 후 처음으로 친정팀을 상대하는 만큼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3경기 연속 이어졌던 그의 득점포가 지난 경기에서 잠시 멈춰서던 언젠나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정조국과 함께 서울을 떠나 광주로 온 김민혁에게도 눈길이 간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김민혁은 광주 입단 후 핵심 멤버로 자리하며 일취월장하고 있다. 남기일 감독은 “김민혁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 2선에서 찬스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다”며 깊은 믿음을 나타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KB국민은행, 소외계층 시즌권 전달식

광주 FC가 KB국민은행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는 최근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운장현 광주광역시청, 기영욱 광주FC 단장, 박재균 KB국민은행 광주전남지역영업그룹 대표, 정희안 광주동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FC 시즌권 구매·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KB 국민은행은 성인·청소년 권을 포함해 590여매(3000만원 상당)의 시즌권을 구매, 광주FC와 광주시 사회복지와 협의를 통해 형편상 스포츠문화 관람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선별기로 했다. 또 광주 FC는 KB국민은행과 협의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박재균 대표는 “스포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매개체인데 형편상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광주 FC는 시민구단으로 그 어떤 팀보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만



큼 지역사회의 역할이 크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장은 “광주 FC는 지난 2년간 K리그 클래식 승격과 잔류를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며 “광주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경기에 임하는 만큼 투혼이 넘치는 경기로 지역사회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러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이란·우즈벡·중국·카타르·시리아 A조

한국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축구 최종예선에서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조추첨에서 이란,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타르, 시리아와 함께 A조로 묶였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축구대회 최종예선은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계속된다. 각 조 1위와 2위 팀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3위를 차지한 2개 팀은 홈 앤드 어웨이로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승리 팀이 북중미 4위 팀과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싸운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조편성(세계랭킹)> ▲A조=이란(42위), 한국(56위), 우즈베키스탄(66위), 중국(81위), 카타르(83위), 시리아(110위) ▲B조=호주(50위), 일본(57위), 사우디아라비아(60위), 아랍에미리트(68위), 이라크(105위), 태국(119위) /연합뉴스

A조	B조 (FIFA 랭킹)
이란(42위)	호주(50위)
대한민국(56)	일본(57)
우즈베키스탄(66)	사우디아라비아(60)
중국(81)	아랍에미리트(68)
카타르(83)	이라크(105)
시리아(110)	태국(119)

신기록 행진... 흥미진진 K리그

개막 한 달을 맞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시즌 초반 갖가지 기록들을 양산하며 흥미를 더하고 있다. 13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전국 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5라운드가 열리는 가운데 새로운 기록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주목을 끄는 기록은 성남 티아고의 5경기 연속골. 티아고는 지난달 12일 수원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인천과의 4라운드까지 매 경기 득점에 성공했다. 이는 1983년 당시 대우 이춘석과 2012년 서울 물리나가 세운 개막 후 4경기 연속골과 타이 기록이다. 티아고가 전남과의 5라운드에서 또다시 골을 넣으면 개막 5경기 연속골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현재 3승1무로 단독 선두에 올라와

성남 티아고 4경기 연속골 새내기 수원FC 4경기 무패 광화주 300경기 출장 ‘-1’ 인천 개막 4연패 불명예도

있는 성남이 전남을 물리치면 4승1무(승점 13)가 돼 지난해 전북의 개막 5경기 승점이 같아진다. 이는 2003년(성남 5연승) 이후로는 개막 5경기 최다 승점 타이에 해당한다. ‘새내기’ 수원FC 역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수원FC는 현재 1승3무(승점 6)으로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 2013년 승강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승격팀이 개막 무패를 이어간 것은 2014년 상

주 상무의 4경기였다. 상주는 당시 4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울산과 일전을 앞둔 수원FC가 지지 않으면 승격팀으로는 처음 5경기 연속 무패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수원의 수비수 광희주(35)는 300경기 출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299경기를 뒀던 광희주는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나오면 300경기 출전이 된다. 프로축구 통산 38번째이다. 한 팀에서 300경기를 출장한 것으로는 과거 신태웅, 김현서, 최진철, 김진우, 윤상철에 이어 6번째에 해당한다. 전북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나서는 인천은 개막 5연패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북전에서도 패한다면 2012년 대전에 이어 4년 만에 개막 5연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연합뉴스

해외파 부진...슈틸리케 고민 깊어가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 전력의 핵심인 해외파 선수들이 최근 소속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적잖은 선수들이 경쟁에서 밀리거나 부상으로 이탈해 출전 기회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주전급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팀 내 경쟁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지난 2월까지 많은 시간을 뒀었던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지난달 단 3경기 출전에 그쳤다. 3월 3일(이상 한국시간) 아스널전(45분), 3월 12일 본머스전(6분), 3월 20일 애스턴 빌라전(45분)에서 모습을 비쳤다. 4월엔 아예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3월 스토크시티전과 10일 첼시전에선 연속 결장했다. 손흥민(토트넘)은 3월 리버풀전에서 약한 달 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21분에 교체됐다. 이후 11일 맨체스터 유나이

기성용·손흥민·이청용 등 팀내 경쟁 밀리며 벤치 신세 월드컵 최종 예선 앞두고 실전 감각 떨어질까 우려

이티드전에서 후반 막판 교체 출전해 단 1분간 뛰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 수개월 동안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다.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은 전월 14일 왓퍼드전에 출전한 뒤 2개월 동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진수(호펜하임)는 2월 1일 바이에른 뮌헨전, 박주호(도르트문트)는 1월 24일 보루시아전이 마지막 출전 기록이다. 두 선수 모두 몸 상태엔 이상이 없다. 지동원(아우구스부르크)은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침묵하고 있다. 2월 22일 하노

버전에서 45분을 뒀 게 마지막이다. 지난 3월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유럽파 선수들은 7명이다. 이 중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선수는 구자철, 홍정호(이상 아우구스부르크), 석현준(FC포르투) 정도뿐이다. 대표팀은 당장 6월 두 차례 유럽 원정 평가전을 소화한 뒤 9월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치른다. 소속팀에서 출전 여부를 대표팀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달 3월 A매치 2연전(레바논, 태국)을 치른 뒤 “남은 기간 모든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 밝혔다. 대다수 해외파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면 실전 감각도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슈틸리케 감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